◀전북 조재진 "팀 승리 내가 이끈다" 서울 박주영▶

토종 골잡이 자존심 내걸고 내일 시즌 첫 맞대결 가능성

hauzen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내가 진정한 대표 골잡이'

한국 축구를 대표할 스트라이커로 꼽혀온 조재진(27·전북 현대)과 박주영(23·FC 서울)이 K-리그 무대에서 처음으로 맞붙는다.

15일 오후 3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8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 2라운드.

출전 가능성은 둘 다 높은 편이다. 유럽 빅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전북에 둥지를 튼 조재진은 훈련 부족 우려에도 지난 9일 부산 아이파크와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왔다.

조재진은 전북이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울 요량으로 영입한 만큼 최강희 전북 감독이 15일 홈개막전에서도 조재진을 베스트11에 포함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박주영은 지난달 중국 충칭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대회 중국과 1차전에서 허벅지 근육을 다치는 바람에 9일 울산 현대와 홈개막전에서 아예 출전 명단에서 빠졌지만 지난 주부터 팀 훈련을 재개했다.

박주영은 지난 11일 구단 행사에 참석해 "다친 곳는 다 나았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며 "올 시즌 최대한 많이 뛰면서 팀에 공헌하고 싶다"고 출전 의지를 내비쳤다.

세뇰 귀네슈 서울 감독이 "훈련을 시켜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훈련 부족이 걸리지만 통증이 없어진 만큼 더 지켜보고 출전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울산전에서 1-1로 비겼기 때문에 시즌 첫 승리를 위해 박주영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

조재진과 박주영은 독일월드컵을 준비하던 딕 아드보카트 전 대표팀 감독에게 발탁돼 2006년 초 전지훈련부터 꾸준히 대표팀에서 동고동락해왔다. 스위스와 독일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함께 선발 출전해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조재진이 그동안 일본 J-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소속 리그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속팀의 승패를 책임지고 있는 데다 자신이 대표적인 토종 골잡이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존심 싸움에 불꽃이 튈 전망이다.

또 조재진과 박주영은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예선 2차전을 앞두고 허정무 대표팀 감독이 발표한 예비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때마침 허정무 감독이 전주를 찾아 이들의 플레이를 점검한다. 북한전 최종엔트리에 들기 위한 경쟁도 한 가지 관전포인트다.

이영표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토트넘 8강행 실패

에인트호벤에 승부차기 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이영표(31)가 오랜 결장의 늪에서 빠져나왔지만 팀은 유럽축구연맹(UEFA)컵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영표는 13일 오전(한국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정팀 PSV에인트호벤과 2007-2008 UEFA컵 16강전 원정 2차전에서 선발 출전했다.

지난 1월30일 에버턴과 원정경기부터 결장하기 시작한 이영표는 무려 10경기 만에 그라운드에 섰다.

자신의 원래 포지션인 왼쪽 풀백으로 나선 이영표는 눈에 띄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탄탄한 수비를 펼쳤다.

하지만 지난 7일 홈 1차전에서 0-1로 진 토트넘이 반드시 한 골 이상 이겨야 했기 때문에 이영표는 후반 시작과 함께 공격수 대런 벤트로 교체돼 나갔다.

양팀은 1, 2차전 합계 1-1로 비겨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로 들어갔다.

토트넘은 7번째 키커 심봉다가 실축하는 바람에 8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스포츠중계

14일(금)

▲2008 PGA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1R(04 : 00·SBS골프·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롯데 : SK〉(12 : 50·SBS스포츠·MBC ESPN)

▲2008 유러피언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2R(14 : 00·SBS골프)

▲07/08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차전〈삼성생명 : 금호생명〉(16 : 50·SBS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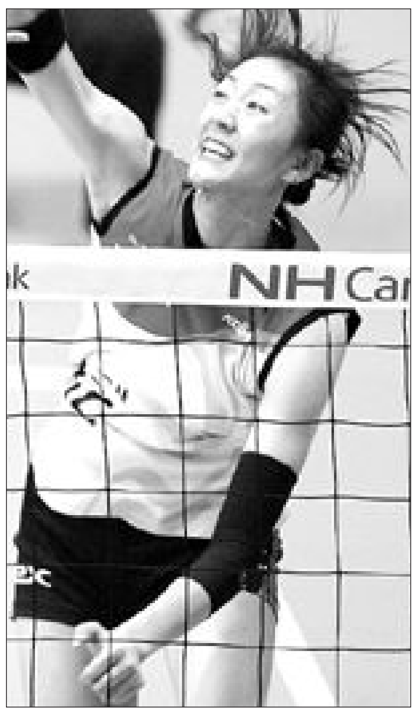
▲베이징 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대한민국 : 대만〉(19 : 30·SBS)

▲프로농구〈KCC : 오리온스〉(18 : 50·SBS스포츠)〈SK : LG〉(18 : 50·XPORTS)

■ 여자프로배구 부문별 개인수상자

◀공격 - 김연경

득점 - 한송이▶



여자프로배구 공격상은 3년째 김연경(흥국생명)에게 돌아갔다. 득점과 수비상은 한송이와 김해란(이상 한국도로공사)이 각각 첫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연경 3회 연속 수상 영예 수비상은 도로공사 김해란

한국배구연맹(KOVO)은 13일 공격상 김연경 등 여자배구 정규리그 부문별 개인 수상자를 발표했다.

공격성공률을 따지는 공격상은 김연경이 47.59%(1천120회 중 533회 성공)로 2위 황연주(37.41%)나 3위 페르난다(37.05%)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2005-2006 시즌부터 3회 연속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47.59%는 지난해 자신이 세운 45.07%를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이다.

개인상 첫 수상 주인공의 기쁨은 더욱 컸다. 한송이는 득점(692점) 부문에서 김연경(649점)을 따돌린 데 이어 백어택에서도 214점으로 페르난다(178점)를 제치고 2관왕 주인공이 됐다.

김해란은 2005년부터 수비상을 독차지해온 남지연을 밀어내고 수비상을 가져갔고, 이효희(흥국생명)는 여자부 최고 세터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세트당 서브득점으로 주인공을 가리는 서브상은 프로 원년부터 황연주와 김연경 등 국내 선수들이 돌아가며 수상해왔지만 이번엔 하께우(GS칼텍스)와 페르난다 등 외국인선수가 1, 2위를 차지했다.

한판승 사나이 이원희 올림픽서 금메달 따면

포상금 5억원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27)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소속팀 한국마사회(KRA)로부터 포상금 5억원을 받는다.

한국마사회는 13일 "소속 선수들의 올림픽 금메달 포상금 액수를 인상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2억원을 주기로 했다. 단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자에게는 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이원희는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우승할 경우 두둑한 포상금도 챙길 수 있게 됐다. 한국 유도 사상 최초의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이원희는 지난 해 10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18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회장기 전국대회 겸 2차 선발전을 앞두고 있다.

한편 유도와 탁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메달리스트 포상금을 금메달 1억3천만원에서 2억원, 은메달 6천500만원에서 1억원, 동메달은 3천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고 덧붙였다.이원희는 아테네올림픽 금메달을 따냈을 때는 한국마사회로부터 포상금 1억원을 받았었다.